



제 6 회 신인춤제전

점고
푸른
춤
신인
한미당

제 6 회 신인출제전

젊고 푸른 초강수꾼 한미당

안무 : 이소라 (부산대)
출연 : 이소라

세상을
한쪽면만
바라보는 마음의 불구가
되었다.

외눈박이



2000년 3월 24일 (금) 하오 7시
25일 (토) 하오 4시

part 1

part 2

2000년 3월 25일 (토) 하오 7시
26일 (일) 하오 4시



행복증후군

안무 : 조희정 (부산대)
출연 : 조희정

나는 오늘 행복이라는 녀석을
목까지 차도록 꾸역꾸역 먹었다.
그러나 배도 부르지 않고
오히려 속이 허했다.



오리

안무 : 장수임 (경성대)
출연 : 장수임

우리는 꿈과 희망으로
새천년을 맞이하였다. 과연
저마다의 '낙원' 이 펼쳐질 것인가...
자연의 순리를 깨고
인위적이지 않아야함을
고대 솟대가 지닌 '수호' 와
'경계' 의 뜻으로 풀어본다.

안무 : 류호정 (경성대)
출연 : 류호정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대를 'n세대' 라고 말한다. (n-network-정보망) 이 세대들의 특징은 컴퓨터로 모든 생활을 한다는 것이며, 하는 일마다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외롭다.

안무 : 서유미 (부산대)
출연 : 서유미

점점 부패되어 가는 세상... 우리는 소외되어 간다. 그러나 그렇게 또 우리는 세상에 맞춰 살아간다. 모순되고 이중적인 인간의 내면풍경이 이리하다.

안무 : 최재원 (부산대)
출연 : 최재원

밀레니엄 시대, 이와 공존하는 무당의 존재... 신령스러우면서도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 오늘, 나는 무당이 된다.

안무 : 이흥수 (부산대)
출연 : 이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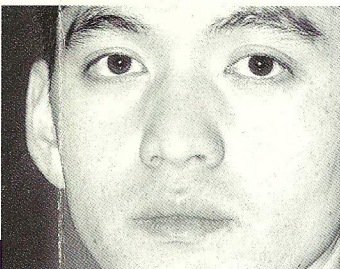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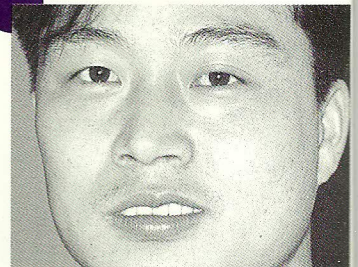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경제적 원칙에 의해 비닐 속에 포장된 움직임, 그리고 불감처럼 쏟아지는 응혈.

□ 속의 들

가린손

靈舞

지하도 우물



이야기 하나 - 용이

안무 : 박근태 (부산대)
출연 : 박근태, 이소라, 김혜원, 박세영, 안선희, 임현애

용이 못 봤나? 우리 용이 못 봤나? 우리는 용이를 잃어버렸다. 우리의 본향마저도 잃어버렸다. 나는 아직도 용이를 찾고 있다. 우리들의 고향을...

悲哀 그리고 붉은 백합

안무 : 김호정 (신라대)
출연 : 김호정, 장미경, 윤월선

어제 그녀는 붉은 백합을 보았다. 오늘도 그녀는 붉은 백합을 보았다. 내일도 붉은 백합을 보기 위해서인가.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

안무 : 김희쟁 (부산대)
출연 : 김희쟁

이 춤과 음악이 내가 소망하는 것을 말해 주는가.

言

안무 : 김윤선 (신라대 · 4기)
출연 : 김윤선, 배선영

사랑의 방정식. 여자는 주위의 모든 사물을 끈으로 묶어 버린다. 그녀의 병명은 애정결핍증. 남자는 그녀에게서 도망치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를 묶어 버리고 떠난다.

안무 : 김지영 (신라대)
출연 : 김지영, 안혜진, 양정이, 류혜정

왜..... 늘 채워지지 않는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것일까. 나의 이 자리가 무의미해지려 한다. 또 누군가가 이야기한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한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햇살



한술의 밥을 먹기 위해.....

안무 : 지영경 (동아대 · 찬조)
출연 : 지영경, 정은심

큰 바위를 마음에 안는다.
 번뇌와 망상을 버린다.
 본연의 자아를 깨우친다.
 새로운 삶에 도전한다.
 한술의 밥을 먹는
 그 가치를 깨닫는다.

안무 : 이봉진 (부산대 · 4기)
출연 : 이봉진, 김추자, 고정숙, 이다경, 오수미, 이승연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고개.....
 날 버리고 가신 남
 어이 쉬이 넘어가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빈그릇 속에 우리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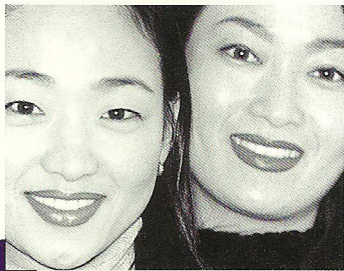
안무 : 서시영 (경성대 · 2기)
출연 : 서시영, 윤지은

더러운 욕심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언제쯤 우리는 참된 이상을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지.....

안무 : 방영미 (신라대 · 2기)
출연 : 방영미, 이수지 (현대무용단 '춤' 단원)

서로 다른 성격과 생활과
 세계관들을 맞추어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갈등,
 그러나 마침내는 화합.

만남



공무도하가

안무 : 허경미, 박지애 (부산대 · 2기)
출연 : 허경미, 박지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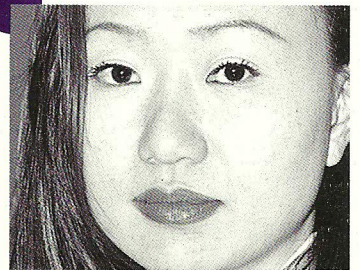
여기에 나오는 두 여자는 공무도하가에서 남편을 따라 물에 빠져 죽었다는 백수광부의 아내와, 이를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불러 전하게 했다는 여옥이라는 여자이다. 이 두 여자의 만남을 가정하고 그 속에서 두 여인의 대화와 갈등, 화해를 통해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의 진정한 사회적 행복추구권을 반추해 보려 한다.

안무 : 여지영 (동아대 · 1기)
출연 : 여지영, 박성미, 김진영, 박이슬, 이수연

물은 본능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
 친숙하고 아늑하다.
 아마도 삼백 날이란
 긴 시간 내내 양수 안에서
 꼬물거렸기 때문일 것이다.

과장

—wave length



- 무대/변인수
- 음향 · 조명/최정완
- 사진/이장수
- 디자인/김정희
- 영상/이호근
- 기획/최찬열, 강희철, 천기호, 이성원

춤의 세기를 기약하는 작은 몸짓

새로운 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첫해, 새봄입니다. 세상이 뒤바뀔듯이 수선스럽던 새 밀레니엄 맞이 축전 행사도 한바탕 지나갔고, 한때 울렁거림도 가라앉아 다시금 평온해졌습니다.

어느덧 봄맞이차비에 생기말랄한 분위기가 없겠습니까마는 새천년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또다른 감회에 젖게 됩니다.

다가오는 세기에 대한 밝은 전망속에는 세기말적 위기의식과 인간내면의 아지못할 불안이 잠복해 있습니다. 온갖 문화정보가 넘쳐흘러 자유분방한 삶을 한껏 누린다고 해도 자기내면과 우리의 주변은 황폐한 삶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곧은 정치, 사회평등, 생태계 회복, 통일염원은 구두선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을 노래하고 속편히 아름다운 춤을 추기엔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가상세계와 창조의 시대라고 합니다. 몸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개발이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기생각, 자기삶을 스스로 제작해내는 자기연출의 시대를 맞고 있는가 하면, 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표현주체가 되어 춤과 노래와 연행이 뭉쳐나오는 페스티벌, 근원적인 세계로 회귀하는 큰 굿관이 지역 곳곳에서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생산하고, 몸으로 굿을 하는 춤꾼이 새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자명해졌습니다.

젊고 푸른 춤의 새내기들이 벌이는 이 작은 춤판, 이 작은 몸짓으로 삶의 그늘을 걷어내기엔 벅찬 노릇입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소중한 것은 새 세기를 향한 밝은 전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중공원이 마련하는 첫 무대에 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여러 뜻있는 이들이 그를 후원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입니다.

2000. 3. 24.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채희완